

‘기차길옆작은학교’ 정기공연 <집>

기차길 옆 작은학교 정기공연 ‘기차길옆작은학교’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



지난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 열렸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2018년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 열렸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인형극 사이사이에 타악패와 춤패, 노래패의 공연이 채워지면서 다채로운 재미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 □□□□□ □□. □□□□□ □□□□ □□□□□ □□□□□. 2□□□□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10-1234-5678 / 010-1234-5678 3.0 010-1234-5678
marinboy58@naver.com